

성인기 성격발달에 대한 이론적 개관(1)

—「변화론」의 이론적 고찰을 통한 발달의 추이, 변인 및 발달통로의 탐색—

김 애 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성인기의 성격발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도출된 이유는 변화론과 안정론이 각각 성격의 다른 차원을 측정하고 있었음에 그 원인이 있었다. 본 연구는 성격의 변화론에 대한 이론과 관련논문들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성인기 성격발달의 추이를 파악하고 변화와 관련된 변인 및 발달통로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성인기의 성격발달은 기질이나 특질의 변화라기 보다는 “자아(self)의 변형과정”이며 변화의 핵심에는 정체감의 위기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변화과정은 전환과 안정의 시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제열적 발달과정이며, 특히 전환기는 성격발달에 중요한 시기로 성인초기 전환기, 30대 전환기, 중년의 전환기가 확인되고 있으며, 각 시기는 인생의 주기에 따른 특별한 발달과제와 정서적 양상을 띄고 있다. 그 중 중년의 전환기는 성격의 가장 의미있는 변형의 시기로 밝혀지고 있으나 아직 연구들이 성인초기에 제한되어 있어 중년기 이후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변화과정에는 사회적 연령보다는 신체적 연령이, 그리고 청소년기의 정체감 상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성차이가 다양한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성인기 성격발달에 대한 두가지 관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격이 변화하느냐 또는 지속되느냐하는 문제는 성인발달 심리학자들에게 끊임없는 논쟁점이 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된 문헌들을 고찰해보면 이 논쟁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안정성에 대한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변화론에 대한 관점이다. 먼저, 안정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성격

을 개인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적인 요인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주로 16PF Test, GZTS, CPI등의 구조화된 성격검사지(structured personality inventory)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여, 개인의 성격특질들(personality traits)이 연령의 증가와 함께 변화하는가를 파악하려고 했다. 이들이 한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은 하나의 일관된 양상을 띄고 있는데, 그 양상은 성격의 안정성에 대한 관점을 지지해 주고 있다(Haan & Day, 1974 Siegler, George & Okun, 1979, Costa, McCrae &

주)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자료수집과 논문의 이론적 구성 및 최종교정까지 세심한 지도를 해주신 윤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Arenberg, 1980, Woodruff & Birren, 1972). 그러나 이러한 성격의 지속성에 대한 관점은 성인기에 나타나는 수많은 심리적 현상들에 대한 많은 통찰을 제공해주지 못할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이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린다는 Freud 식의 결론에 귀착되어 버릴 우려가 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가지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현상들—기력 및 기동력의 감퇴, 지각, 감각 및 인지능력감퇴, 역할변화 등—이 변화한다는 사실의 발견은 성인발달심리학자들로 하여금 거기에 따른 성격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연령증가에 따른 성격의 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자아심리학자들(Neugarten, Gutmann, Levinson, Gould 등)로서, 이들은 개인 내부의 특질, 동기, 욕구, 습관, 태도, 가치등의 다양한 성격요소들이 역동적으로 조직되는 자아과정을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주로 투사법이나 면접법을 사용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아과정의 양상을 밝히려 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들은(Gutmann, 1964, Neugarten, 1968, Levinson, 1978)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조망, 성역할, 자아통제방식, 생활구조(life structure), 자아감동 다양한 심리사회적 현상들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두 종류의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도출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하여, “성격(personality)이란 무엇인가?”하는 성격의 정의에 대한 문제와 아울러 성격의 측정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Allport(1937)는 그의 첫번째 저서 “성격: 심리학적 해석”에서 “성격(personality)이란 개인의 정신신체적 체계(psychophysical system)안에서 그의 특징적 사고와 행동을 결정해 주는 역동적 조직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정신 신체적”이란 말은 성격은 정신과 신체가 함께 포함된 인간본질의 전부를 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역동적 조직”이란 인간의 행동과 사고는 끊임없이 발달하고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는 “성격특질(traits)”이란 다양한 종류의 자극에 대해 동등한 양식의 반응을 보이며, 시간의 흐름과 상황을 초월해서 일관된 반응을 하게하는 “결정경향 또는 성향(predisposition)”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질들은 성격의 중요한 구성요소들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성격이란 이러한 특질들의 단순한 묶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는 우리의 성격안에는 특질, 태도, 가치, 동기, 욕구 그리고 경험등을 통합하는 전반적인 법칙이 내재하고 있음을 가정하고, 그것을 자아(Ego) 또는 고유자아(Proprium)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것은 인식된 자아(self-as-known) 또는 자신(Self)을 의미한다(Hjelle & Ziegler, 1981, 이훈구 역). 또한 Kimmel(1974)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데, 그는 성격(personality)이란 총체적인 “심리사회적 체계(psychosocial system)”를 의미하며, 그 중심부는 자아(Self)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자아정체감이란 자기정의(self definition)를 하는데 중요한 자아의 면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성격의 어떤 면은 보다 안정성이 있지만, 어떤 면은 보다 안정성이 적다고 하고 있다. Allport와 Kimmel의 이러한 견해는 특질들이란 연령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보이는 성격의 일면을 가리키며, 이와 동시에 비록 특질이 지속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격의 다른 면은 변화한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론에 비추워볼 때, 성격의 안정론과 변화론을 지지해주는 연구들은 성격에 대한 개념정의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성격의 서로 다른 일

면을 측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성격의 안정성을 지지해 주는 연구들은 측정도구 자체가 발달적 이론에 의해서 도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달적 변화에 저항이 큰 비교적 선천적인 성격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반면에, 성격의 변화론을 지지해 주는 연구들은 발달적 이론에 근거해서 비교적 발달적 변화에 민감하고 후성적인 성격변인들을 측정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한가지는 연령구분의 문제인데, 안정론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연령구분이 발달적 이론에 근거해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연령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변화에 민감할 수 없었던 반면에, 변화론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발달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비교적 정교한 연령구분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McCrae와 Costa(1984)는 이와같은 두 가지 흐름의 연구결과들을 성격이라는 주제아래 통합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성격특질의 안정성이 삶 그 자체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은 변화하며, 개인은 그러한 변화에 적응해야하며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재형성해야 한다. 비록 성격특질이 안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역할, 가치, 신체적 속성, 대인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자아개념, 자아정체감이 변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미래의 연구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연구이어야 하며, 인생의 경험이 어떻게 성격을 변화시키느냐를 묻기보다는 성격이 어떻게 인생을 형성하고 삶의 과정에 질서와 연속성과 예언성을 줄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격의 변화론에 대한 이론과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전 생애를 통한 성격변화의 추이(trend)를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다양한 발달의 통로를 고찰해 봄으로써 새로운 연구방향과 연구에 고려되어야 할 변인들 및 그 방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Erikson의 심리사회적발달에 대한 이론과 실증적 연구들

성인기의 성격발달에 대한 통찰을 제일 먼저 제공해 준 사람은 Carl Jung이다. 그(1954)는 “개별화(individu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격이 성숙적으로 변화해감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중년기를 성격발달의 정점으로 보았는데, 이 시기가 되면 개인은 이전에 억압되었거나 소홀히 했던 자신의 본성의 일면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실체를 인식하고 수용하여 자아를 통합해 나가므로서 성숙한 성격을 발달시켜나가게 된다고 보았다. 그는 이 과정을 “개별화”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과정에는 전반기의 삶을 특징지워준 심리형(psychological type)의 포기 뿐만 아니라, 페르조나(persona), 아니마(anima), 아니무스(animus)와 같은 원형(archetype)의 변화가 수반된다고 말하고 있다(Schultz, 1977, 이해성 역). Jung의 이러한 이론은 그동안 소홀히 되어 왔던 인생 후반으로 심리학자들의 관심을 끌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Erikson의 이론과 함께 성인발달 심리학자들의 경험적 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Erikson(1963, 윤진, 김인경 역)은 그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서 전생애 발달에 대한 보편적인 양상을 개념화 하고 있는데, 그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성장은 인생주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발달적 위기의 기능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는 전생애의 발달과정을 8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개인이 당면하는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의 해결은 개인의 성숙과정과 문화-사회적인 요구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는(1963, 1968) 청년기를 제2 인생형성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시기로 보았으며, 이시기에 개인이 당면

한 과제를 자아정체감의 위기라고 불렀다.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서 제5단계에 해당되는 이 시기에는 개인은 새로운 양상으로 대두되는 심리성적 충동의 내적변화와 자기와 외계를 예리하게 통찰할 수 있는 고도의 인지능력, 그리고 외적으로 부과된 사회적 역할로 인해 이전에 가졌던 자기상, 역할, 대응방식, 능력, 가치 및 이념에 대해 심각한 회의와 갈등이 짝트게 됨으로써 새로운 자기탐색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는 이 시기를 “정체감 확립의 유예기”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에 대한 해결여부는 “정체감 성취 대 역할혼미”라는 양극성인 발달양상을 띄게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체감의 형성은 당사자인 개인이나 그가 속하고 있는 사회에 분명히 의식되지 않는 채로 진행되며 점성적 원리(epigenic principle)에 따라 전생애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보았다(서봉연, 1988, 제인용). 따라서 6단계인 성인초기에는 정체감을 추구하고 고집하는 것으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정체감을 타인의 정체감과 융화시키기를 갈망하며, 상당한 희생과 양보가 요구되며 자아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입을 유지시킬 윤리적인 힘을 발달시키고 친화력과 동료의식을 공고히 하는 친밀감을 발달시킨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자아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와같은 경험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고립감과 결정적인 자기몰입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 또한 성인 중기의 중요한 발달과제를 생성감 대 침체감이라고 보았는데, 여기서 생성감이란 후세에 대한 지도와 배려 그리고 생산성과 창조성이란 일차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몸과 마음을 합일해서 자신을 보다 자유롭게 할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므로써 자아의 관심을 점차 확장시키고 생성중인 리비도적 투자를 하게하는 정신분석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생성감을 발달시킨 자만이

“자아통합”이라는 전생애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Erikson은 생애의 후반보다는 생애의 전반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으며, 또 각 단계가 시작하고 끝나는 구체적 연령이나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Erikson의 이론을 보다 객관성 있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을 확인해 보려는 시도가 성인발달 심리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계속되어 오고 있다.

한편, Constantinople(1969)은 객관식 검사도구인 Inventory of Psycho-social Development (IPD)를 고안하여 Erikson의 심리사회성발달 이론 중 처음 6단계를 검증한 결과, Erikson의 이론과 일치한 ‘계통발생적 변화가 대학시절에 일어나고 있다’는 첫 증거를 발견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섯단계 중 다섯개의 단계에서 보다 성숙한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었는데, 특히 5단계의 정체감 성취 대 역할혼미 요인에서는 뚜렷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5단계의 정체감 요인에서는 남녀간에 성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남성은 여성보다 대학시절동안 정체감이 훨씬 더 성숙하게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성차이는 추후의 연구에 의해서 집단효과임이 밝혀졌다. Whitbourne과 Jelsma(1982)는 1977년에 대학 1학년이었던 두 집단을 2년후인 1979년에 재검사한 결과 1학년 집단에서는 남성이, 2학년 집단에서는 여성이 더욱 정체감을 성숙한 방향으로 발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체감 발달에 있어서의 남녀의 성차이는 계통발생적인 차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역할, 문화적, 역사적인 요인에서 기인한 차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그후 Whitbourne과 Waterman(1979)역시 Erikson의 심리사회성발달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IPD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여, 장기종단, 단기횡단 그리고 시기차이분석을 병행한 계열적 연구방법을 시도했다. 이 연구에서의 가정은 1~4단계와 관련된 위기

는 이 시기 이전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성을 보일 것이나, 보다 큰 변화가 5~6단계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였는데, 3가지 방법의 분석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는 이러한 가정을 지지해 주었다. 즉 장기종단, 단기횡단분석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인 성장경향(growth trend)이 나타났으며, 특히 근면성, 정체감, 친밀감이 가장 발달했다. 그리고 성인초기까지의 이러한 발달은 이전 단계의 발달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시기차이분석에 의하면 시기차이 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정반대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는데, 성역할의 변화와 여권운동과 같은 사회적 흐름이 여성의 심리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남성에게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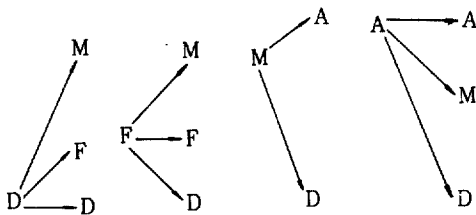
한편 Marcia(1966)는 Erikson의 청소년기의 정체감 위기를 해결한 결과로 생긴 양극적인 두 가지 대안을 4가지 범주로 확장시켰다. 그녀는 반구조적 투사법(semi-structured projective)을 사용하여 개인이 정체감 위기에 반응하는 양식을 “위기(crieses)”와 “관여(commitment)”의 두 가지 차원에 준거해서 “정체감 성취”, “정체감 유예”, “정체감 유실”, “정체감 혼미”의 4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그리고 추후의 연구(1976)를 통해 대학시절의 정체감 발달상태와 졸업후 6년후의 친밀감 발달사이에 연관이 있는 것을 발견해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화는 개인을 정체된 유형으로 특징지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달과정을 무시한다는 비평을 받고 있다. 특히 정체감 유예상태는 고정된 상태라기 보다는 전환기를 의미하며 정체감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닌 계속 발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Waterman에 의해 더욱 구체화 되고 있다.

Waterman(1982)은 청년기로부터 성인초기로 전환되는 동안에 정체감이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Marcia의 4가지 정체감 구조를 확

장하여 가능한 발달통로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줌으로서 성인기의 발달이 연속적인 과정이며, 그 발달의 통로가 다양할 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그림 1).

그러나 이상과 같은 Erikson이론을 검증하려는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들의 정체감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중년기 이후까지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Whitbourne(1986^a)은 이러한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 그녀는 성인의 정체감은 신체적 능력, 동기, 목표, 태도, 가치 그리고 자신에게 소속되었다고 생각하는 역할등의 통합이며, 경험을 해석하는 근거가 될 뿐만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변형되기도 한다고 정의하고,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을 적용해서 성인기의 정체감 발달과정을 정체감 동화(Identity Assimilation)와 정체감 조절(Identity Accomodat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의 성인기 정체감 발달이론(Whitbourne, 1986^b)의 근거에는 정상적인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고, 유능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기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정체감이 성취되면 행복감을 느끼나 그렇지 못하면 불안하고 우울해진다는 가정이 깔려있다. 정체감 동화는 자신이 현재 인식하고 있는 정체감(사랑받고, 유능하고, 선하다)의 틀에 일치하게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려는 과정이며, 정체감 조절이란 경험이 자신의 정체감과 불일치할 경우에 경험으로 부터 얻은 새로운 정보에 따라 자신의 정체감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정체감의 변화는 외적, 내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정서적인 불균형상태는 과동화(over-assimilation)나 과조절(over accomodation)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Whitbourne은 자신의 정체감 발달모형을 Marcia의 정체감 모형과 연합시키므로써 청소년기의 정체감 발달상태가 그 이후의 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을 가정해 보고 있다(그림 2). 즉 청

소년기에 정체감 성취상태에 있는 사람은 동화와 조절을 균형있게 사용할 것이며, 정체감 유예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동화와 조절 사이에서 동요를 할 것이며 정체감유실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과동화를, 정체감 혼미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과조절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성인기 성격 발달의 동향을 지위중심(status-oriented)의 연구에서 과정중심(process-oriented)의 연구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림 1>

정체감 성취(A): 동화=조절
 정체감 유예(M): 동화<조절
 정체감 유실(F): 동화>조절
 정체감 혼미(D): 동화<조절

<그림 2>

3. Levinson의 생애구조 이론과 실증적 연구들

Erikson의 성인기의 심리사회성 발달에 대한 통찰은 1970대년 들어 Sheehy(1976)가 "Passage"를 통해 제기한 문제들이 발달이 되어 Levinson, Gould 등에 의해 보다 정교한 이론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다.

Levinson(1978)은 35~45세의 40명의 남자들에 대한 전기적 면담(biographical interview)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성인기에도 질적으로

다른 발달의 시기들이 존재하며, 각 연령시기마다 독특한 과제와 심리사회적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기본적인 "생애구조"가 성인발달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개인의 생애구조는 가족, 직업, 친구, 종교, 여가등의 다양한 주제를 선택하고 조직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보았는데, 이 과정은 개인의 사회 문화적 세계(world; 계급, 종교, 정치체제, 가족관계, 직업구조, 인종등)와 의식, 무의식적인 자신(self; 소망, 갈등, 도덕적 가치, 이상, 재능, 특성, 사고등)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세계"는 서로의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서로를 형성하지만 본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2차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즉 개인의 사회문화적인 세계는 애착, 야망, 불안, 동일시, 창조적 생산의 실질적 바탕이 되지만 보상과 처벌에 의해 "자신"의 어떤 면은 발달시키고 어떤 면은 방해하며, "자신"은 환경에서 주어진 제약과 가능성으로 부터 선택을 하고 자신의 세계를 형성 또는 변형해가는 주요 요인이라고 하고 있다. 그는 전생애를 성인초기(20~40세), 성인중기(40~60세), 성인말기(60~80세), 노년기(80세~)의 4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를 또다시 특별한 발달적 과제로 특징지워진 4~7년 간격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각 시기 사이에는 전 시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기를 준비하는 과정인 4~5년의 전환기(cross-era transition)가 있음을 밝힘으로서 전 생애가 안정과 갈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변증법적인 변화과정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아직 성인초기에서 중년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의 생애구조 이론을 좀 더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성인초기(17~33세)에는 주로 꿈을 형성하고, 스승관계를 형성하며, 직업을 찾고, 이성과 지속적인 애정관계를 형성하는 과제에 당면

하게 되는데, 제1단계인 성인초기 전환기(17~20세)에는 개인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신의 독특한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2단계인 성인생활 시작시기(22~28세)는 결혼과 취업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므로서 새로운 인생의 구조를 계획하는 제1정착기라고 할 수 있다. 제3단계는 30대의 전환기(28~33세)인데,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생활등을 재평가해 봄으로써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게 된다. 이 때는 아직 신체적 정신적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새로운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제4단계는 성인초기의 절정기(33~40세)로서, 개인은 가정과 직장 그리고 자신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 보다 깊은 개입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을 투자한다. 그래서 Levinson은 이 시기를 “제2기의 정착기”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후반부터는 자신에 대한 내성이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세상과 타인들이 원하는 것에 부합하기 위해 형성된 자신의 모습을 벗어 버리고, 진실된 자신의 실체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된다. 이 시기가 중년의 전환기(40~45세)이다. 즉 내가 누구인가?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은 가치가 있는가? 하는 실존적인 의문과 공허감이 이 시기의 중요한 주제이다. Levinson은 이 시기를 생애의 전환기 중 가장 의미있는 변형의 시기로 보고 있는데, 그의 피험자 중 80%가 자신의 내부에서 그리고 외부세계와 심각한 고투를 하고 있으며, 정서적 혼란과 갈등, 절망과 좌절로 점철된 위기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위기감의 핵심에는 죽음에 대한 필연성(mortality)과 젊음이 사라져감을 애도하는 심정이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년의 위기감”은 그 자체가 결코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며, 자신의 외면되었던 면들을 인식하고 “자신(self)”을 더욱 전체로 통합시켜 나

가는 유익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중년의 전환기에 시작되어 중년기 내내 확장되어 다음 시기에는 새로운 형태를 취한다고 보았는데, 그는 개인이 이러한 중년의 위기를 원만히 해결하면 생산성이 증가하고, 경쟁심이 감소하고, 지혜와 관용이 생기며, 여가를 즐기고,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보았다. “중년의 위기”에 대한 Levinson의 이러한 견해는 앞에서 기술한 Jung의 “개별화” 과정이나 Erikson의 “생성감 대 침체감” 개념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Gould(1972, 1978), Vaillant(1977)의 연구에 의해서도 역시 이러한 견해는 지지되고 있다.

Gould(1978)는 524명의 중산층 백인(16~60세)을 대상으로한 단기횡단 연구(질문지 방법)를 통하여, Levinson이론과 유사한 7개의 발달단계가 성인기에 존재함을 발견했다. 그가 단계를 구분하는 연령시기는 Levinson과 유사하며, 발달과정에 내재하는 개념도 유사하다. 즉 16~22세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정체감 형성이 주요 관심사이며, 22~28세에는 자율성이 확립되어 인생의 목표를 달성키 위해 헌신하며, 28~34세에는 20대에 설정한 인생의 목표와 결혼에 대한 재평가를 하며, 35~43세에는 자신이 지녀온 가치에 대한 물음과 죽음의 필연성에 대한 각성이 시작되며, 일의 의미가 변화 했다. 그도 역시 이 시기에 Levinson의 “중년의 위기”와 유사한 혼돈과 불만족으로 가득한 불안정한 시기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성인발달과정을 자신(self)의 변형(transformation)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즉 성인이 되면 어린 시절의 환상과 거짓 가정들이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므로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며, 이러한 갈등을 통해 자신은 어린 시절의 거짓 가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의미있는 변형의 시기를 중년기로 보았다. “중년의 위기” 동안에는 이러한 거짓 가정이 가장

강렬하게 도전을 받게 되는데, 이때 자기성찰이 시작되게 되며 자신의 중심부(core)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므로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정서적 만족, 원만한 대인관계를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Vaillant(1977)는 그의 장기종단연구를 통하여 성인기를 “적응과 자아방어기제의 변형(matamorphoses in adaptation and defense)”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20~40세를 친밀감과 이력을 공고화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으며 이 시기의 안정적 결혼, 직업에서의 적응(mentor와의 관계), 사회적 적응, 심리적 건강상태가 개인의 성격특성보다 더 중년의 성공적인 적응을 예언해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건강한 중년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일수록 보다 긍정적인이고 성숙한 자아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그의 피험자들 중 40~50대로 접어든 사람들에게서 Levinson이 묘사한 “중년의 위기”와 유사한 심리적 현상이 있음을 확인했는데, 그는 40대 초반의 고조된 각성과 본능적 에너지의 인정과 수용은 자신의 진실한 정체감을 공고히 하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았으며, 40대 중반의 생성감과 50대 이후의 성공적인 노화를 예시해주는 조짐으로 간주했다. 그리로 이러한 전환기는 전반기 인생에서 자신의 성공에 사로잡혔던 이기적이고, 보수적인,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감을 제공해 주고, 일의 중요성과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며, 50대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존재양식을 예언해 준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이론적 근거와 경험적인 연구결과들에도 불구하고, “중년의 위기”가 정상적인 성인발달과정에서 일어나는 “유익한 사건”이라는 가정에는 많은 비판과 도전이 뒤따르고 있다. 그 이유는 많은 경험적 연구결과들(Brim, 1976, Hann, 1981, Costa & McCrae, 1980, Ruch, Peacock & Milkovich, 1980, Vaitenas & Wiener, 1977)이 이를

지지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Levinson, Gould 등의 연구방법의 객관성과 표본의 문제점, 그리고 연구자 자신들이 연구시기에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 연구결과 분석의 객관성을 흐리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비평을 받고 있다(Whitbourne, 1986@). 그러나 '80년대 들어 Levinson의 생애구조이론은 성차이, 사회적 연령(가족의 주기), 인생행로(life path), 청소년기의 꿈 등 다양한 차원의 변인들이 고려되면서 연구되어 오고 있다.

4. 성차이에 대한 연구들

Livson(1981)은 California Intergenerational Studies를 통하여, 개인의 청소년기의 성격과 문화적 성역할 사이의 관계가 성인의 성격발달과정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그 내용에는 성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성의 경우, 전통적인(traditional)여성은 청소년기에 관습적이고, 사교적이고, 여성적인 성격이었으며, 확고한 정체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40대에도 사교적이고 협동적이며 친밀감이 발달했고 중년의 위기감이 없었으며, 50대에는 양육적이고 관용성이 발달했다. 반면에 비전통적인(non-traditional)여성은 청소년기에 보다 야망적이었고 사고가 지적이고 비판습적이었으며 확실한 정체감이 있었다. 그러나 40대에는 이러한 특성이 억압되어 지적능력, 성취욕구가 분명하지 않았으며 중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50대에는 이러한 위기감이 해결되어 비 전통적인 정체감이 재확립, 지적능력이 회의와 통찰을 거쳐 보다 자율적이고 야망적이 되며 자신의 감정표현이 쉽고 자신의 발전에서 만족을 얻고 있었다. 남성의 경우, 전통적인 남성은 청소년기에 충동을 통제하고 정서적 자율성이 결핍되어 있고, 성취가 주요 목표이었다. 40대에는 생산적

이나 의존적이었으며 유능감, 합리성, 성취를 중요시 했으나 감정표현과 친밀감이 발달했다. 50대에도 계속 생산적이었으며 자신에 대해 현실적인 지각을 하고 자기훈련과 합리성에 가치를 두었다. 반면에 비 전통적인 남성은 청소년기에 충동적, 정서적이고 유모어 감각이 있었으나 보다 덜 자기주장적이고 정체감이 확립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40대에는 자기 주장적이고 불안, 불신, 방어적이었으며, 정서표현이 솔직하지 못하고 남성성을 과장하였으며 정체감의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50대에는 갈등이 해결되어 과장된 남성성을 벗어나고 친밀감을 발달시켜 다시 정서적이고 사교적이고 외향적이 되었다. Livson에 의하면 비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이 유사한 발달의 통로를 거친 이유는 이들은 관습적인 성 역할에 적합하지않은 성격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성인초기에 이러한 면을 억압하고 전통적인 성 역할을 받아들임으로서 정서적 발달에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중년의 위기동안에 자신의 감추어진 면이 표출되고 발달적 과제를 해결하므로써 심리적 건강이 증진되고 있다. (Perlmutter, 1985 재인용)

Reinke등(1985)은 Levinson의 이론이 여성들에게도 일반화 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60명의 여성피험자들을 30, 35, 40, 45세의 4집단으로 분류하여 개방식 인터뷰(open-ended questions)를 실시했다. 회고적으로 자기보고된 면접자료는 개인의 생활사, 내적 심리적 변화 그리고 생애구조의 3가지 차원에서 분석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성인기 여성들의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와 이러한 심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연령인가 아니면 가족주기인가를 확인하려는 데 있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피험자들은 78%가 27~30세 사이에 중요한 첫 심리적 전환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는 연령과 관계가 있었으나 가족주기와

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변화의 과정은 개인적인 붕괴, 자신에 대한 성찰과 재평가, 자아추구, 심리적 안정과 자아개념 상승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초기의 첫 심리적 전환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Levinson연구의 남성피험자들과 동일하나, 여성의 심리적 변화과정과 내용은 남성과 차이가 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Roberts와 Newton(1987)은 Levinson이론의 여성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기위해 시도된 4개의 미 출판된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해 보았다. 그는 이 연구에 제시된 39개의 개인의 전기(Biographies)에서 여성들도 Levinson연구의 남성들과 똑같은 발달적 시기를 거칠뿐아니라 그들이 각 시기에 당면한 발달적 과제도 유사함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해결결과가 차이가 났었다. 즉 여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이 30세를 전후하여 첫 심리적 전환기를 겪고 있었으나 20대에 직업적 목표를 강조했던 여성중 38%가 가정으로 전환했거나 가정과 직장의 두 가지 목표를 동등하게 생각한 반면에 20대에 가정과 육아를 강조했던 여성의 46%가 개인적 목표를 추구하고 가족과의 심리적 분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대에 장래의 목표에 대한 우선 순위가 없었던자는 직업이나 가정적 성취에 만족하지 못하고 정서적 위기를 맞고 있었다. 또한 여성들은 30대후반의 절정기와 중년의 전환기 사이에 뚜렷한 구별이 없었으며, 중년기에는 직업과 가정에 대한 개입양상이 현저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연령 자체가 큰 변인이기는 하였지만 가정밖의 일에 개입했던 사람들은 생활사에서 오는 변화에 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녀의 차이는 여성들의 꿈과 생활의 복잡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꿈(dream)을 관계적인 꿈

(relational D)과 개인적인 꿈(individualistic D)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전자는 가족과 친구, 동료들간의 관계로 정의된 자아상을 내포하고 있으며, 후자는 직업에서의 독립된 성취자로서의 상을 내포하고 있다. 대부분 남성들은 20대에 개인적인 꿈이 우선 순위가 되나 여성들은 극소수만 개인적인 꿈이 우선 일뿐 대부분 관계적인 꿈이 우선이거나 둘중 우선 순위가 없는 분리된 꿈(split D)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연구자들의 이와같은 분석은 청년기의 자아정체감 양상이 그 이후의 생애구조와 심리사회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한편 Helson과 Moane(1987)는 성인발달 이론에서 도출된 가정들이 인생행로(life path)가 다른 모든 여성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81명의 여성들에 대한 장기종단연구를 실시했다. 모든 피험자들의 3차에 걸친 검사결과들은 21세, 27세, 43세의 연령군으로 분류되어 분석되었다. 성격검사도구로는 DPI와 ACL(The Adjective Check List: Gough & Heilbrum, 1980)이 사용되었으며, 30대와 40대의 감정을 비교하기 위해서 40개의 문항으로된 3점척도의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역할개입의 정도가 측정되었으며, 피험자들의 사회적 인생주기(social clock pattern)에 따라 7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어 비교 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격변화의 양상이 성인발달이론에서 도출된 가정들과 일치하게 나타났다. 즉 CPI의 결과는 각 하위요인들간에 등위적 안정성(rank-order stability)을 보이고 있었으나, 각 하위요인들내에서는 연령증가에 따른 변화양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 연령별로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21세에서 27세사이에는 여성성, 자기통제력, 인내심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시기에 새로운 인생구조를 형성

하여 가족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어머니와 주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27~43세 사이에는 지배성, 독립성, 공공성(communality)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책임감, 융통성, 여성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역할에 대한 동일시가 여성성에서 양성성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성격변화는 개인의 인생행로(life path)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또한 30대와 40대의 감정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피험자가 30대를 보다 후회스럽고, 자유가 제한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시기로 회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30세 이후의 자기내성과 자기추구 그리고 중년기의 자아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역할개입의 수준이 변화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역할은 32세에 절정을 이루었다가 점차 감소했으나, 직업적인 역할개입은 32세 이후에 급격히 증가했다. 이 연구에서 특이하게 밝혀진 사실은 성격변화의 추세가 사회적 연령이나 인생의 행로보다는 신체적인 연령에 의해서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사실이다.

5. 결론 및 논의

지금까지 성인기의 성격발달에 대한 이론들과 그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고찰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1)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Allport는 성격을 개인의 “정신신체적 체계”라고 하고 있으며, Kimmel은 “심리사회적 체계”를 의미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내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역동적으로 조직하는 중심부를 “자아(self)”라고 하고 있으며, 이 자아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기능을 하는 자아의 면들을 “자아정체감”이라고 하고 있다. 개인의 자아감은 어린시절 신체적 자아감에서 부터 시작하여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차츰 확장되고 일생을 통하여 발달형성되어간다.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시기에 나타나는 새로운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그리고 인지적인 변화양상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Erikson이후의 성인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변화양상을 살펴볼때, 이러한 정체감의 위기는 비단 청소년기에 절정을 이루었다가 그대로 정체되어 버린것 같지는 않다. Levinson이후의 이론과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30세를 전후한 전환기나 40세의 전환기에 나타나는 위기감은 이러한 자아정체감의 위기가 재현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으며,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인 상태가 인생의 주기에 따라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띄고 있음은 그 시기의 발달과제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성인기의 성격발달은 비교적 선천적이고 어린 시절에 형성된 성향(disposition), 특질(traits)이 변화하는 현상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특질, 성향 뿐아니라 동기, 기대, 욕구, 인지, 신체적, 생리적인 요인들이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생성해내는 “자신(self)의 변형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변화의 핵심(core)은 정체감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 발달의 시기구분과 발달과제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성인기의 발달시기 구분은 성인전기(청소년기), 성인초기, 성

인중기, 노년기로 크게 대별해 볼 수 있는데, 각 시기들은 혼돈과 갈등이 특징이며, 정서적 좌절과 고통에 민감한 전환기와 안정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적인 발달과정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전환기는 성격발달에 중요한 시기로서, 정체감 형성을 위한 갈등이 커다란 과제로 부각되는 “청소년기 전환기”와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결혼관계를 재평가해 보는 “30대의 전환기”와 자신의 실체에 대한 내성과 자기성찰이 특징인 “중년의 전환기”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 중 가장 의미있는 성격의 변형시기는 “중년의 전환기”라고 하고 있는데 Levinson은 중년의 전환기 자체를 발달적인 위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청소년기와 성인초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중년 이후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Levinson등이 주장한 바와 같이 “중년의 위기감”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성숙적인 성격발달을 초래하는 유용한 사건인지?는 더욱 많은 탐색이 요구되고 있다.

3) 정서적인 변화의 추세

인생의 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정서적인 발달의 양상은 그 시기의 발달과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차이와 성차이가 있음이 시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결혼과 자녀양육이 중요한 발달과제인 성인초기에는 친밀감, 의존성, 여성성이 우세하나 중년에는 독립적, 지배적이고, 양성성으로 변화해가는 반면에, 남성의 경우, 이력형성이 중요한 과제인 성인초기에는 독립적, 자기주장적, 지배적이던 성향이 중년에는 정서적이고 친밀감을 발달해가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성역할 고정관념과 인생행로(life path)에 의한 차이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탐색이 요구되고 있다.

4) 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성격의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는 신체적 연령(chronological age), 사회적 연령(social clock pattern) 및 인생행로, 청소년기의 꿈(정체감) 그리고 성차이등이 검증되었다.

첫째, 사회적 연령이나 인생행로보다는 신체적인 연령의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기의 성장과 발달이 생물학적인 성장보다는 사회적 시계에 의해 평가된다는 점(윤진, 1985)을 감안할때 흥미로운 사실이기도 하나, Erikson, Levinson등이 성인기의 성격변화의 원인을 외적인 요인보다는 내적인 요인에 더 비중을 두고 있으며, 변화의 과정이 의식,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일어난다고 한 사실을 더욱 흥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성인기 성격발달이 자신과 세상과의 상호작용과정임을 상기할때, 외적인 변인의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다. Neugarten(1977; Kimmel, 1980 재인용)은 성인기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요인을 두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정상적인 인생의 주기 또는 가족의 주기에서 맞게되는 졸업, 취업, 결혼, 출산, 자녀출가, 은퇴등의 사건으로, 인생에서의 전환점 역할을 하며, 개인의 자아개념과 정체감의 변화를 초래하기는하나 어떤 정서적인 위기감은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이혼, 자녀의 죽음, 실업, 부모의 죽음 등 인생의 주기에 상관없이 특정인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으로 개인에게 정서적인 고통과 충격, 위기감을 초래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성인기 성격변화의 흐름이 신체적 연령에 기인한 것인지 또는 사회적 연령에 기인한것인지가 더욱 탐색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이 처한 특별한 상황변인은 위의 두 가지 차원에 따라 분석됨으로서

인생행로에 따른 이론의 다양성과 융통성이 발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청소년기의 꿈이나 정체감의 발달상태가 이후의 성격발달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Livson, Roberts & Newton, Marcia, Whitbourne등의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따라 Waterman은 청소년기 이후의 가능한 정체감 발달통로를 가정하고 있으며, Whitbourne은 청소년기의 정체감 발달상태가 성인기의 정체감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가정을 도식화 해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시도는 성인발달의 연구동향이 지위중심의 연구(statuses-oriented)에서 과정중심(process-oriented)의 연구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연구는 사회, 경제적 상태, 건강상태, 결혼관계등 발달의 흐름과 별로 관련이 없는 상태적인 변인들이 주로 연구에 고려되었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성인기의 어떤 시기에 나타난 독특한 심리적 현상들은 그 시기에 나타난 정체된 현상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성인기의 성격발달을 계열적이면서 연속적인 발달과정이라고 볼 때, 이전과 이후의 발달과정을 연결해서 보는 과정중심의 연구가 지향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년의 위기감"을 청소년기의 정체감 발달 상태와 연관지어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연구에서 발달의 시기구분과 각 시기에 당면한 발달과제에 대해서는 성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발달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 및 정서적인 양상은 성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문화, 사회,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더욱 비교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 서봉연(1988). 한국청소년들의 Identity Crises에 관한 분석적 연구. 심리학의 제문제, 3, 129-160.
- 윤진(1985). 성인. 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Allport, G. (1937).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Brim, O. G. Jr(1976). Theory of the male mid-life cris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6, 2-9.
- Costa, P. T. Jr., McCrae, R. R(1980). Still stable after all these years: personality as a key to same issues in adult and old age. In P.B.Baltes(Ed)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vol.3, pp.65-102). New York: Academic Press.
- Costa, P. T. Jr., McCrae, R. R. & Arenberg, D. (1980). Enduring dispositions in adult m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793-800.
- Constantinople, A. (1969). An Eriksonian measure of personality development in college stud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 357-392.
- Erikson, E. H. (1963). 윤진, 김인경 역(1988). 아동기와 사회,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Erikson, E.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utmann, D. L. (1964). An exploration of ego configurations in middle and later life. In B.L. Neugarten(Ed), *Personality in middle and later life*. New York: Atherton.
- Gould, R. L.(1972). The phases of adult life: A study in developmental psycholog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29, 521-531.
- Gould, R. L.(1978). *Transformations: Growth and change in adult life*, New York: Simon & Schuster.
- Haan, N. & Day, D.(1974). A longitudinal study of change and sameness in personality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 11-39.
- Hann, N.(1981). Common dimensions of personality development: Early adolescence to middle life. In D.H. Eichorn, J.A.Clausen, N.Hann, M.P.Honzik, & P.H. Mussen(Eds.), *Present and past in middle life*(pp.117-151). New York: Academic Press.
- Helson, R., Moane, G.(1987). Personality change in women from college to mid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1), 176-186
- Hiele, L. A. & Ziegler, D. J(1981). 이훈구 역. 성격심리학, 서울: 범문사
- Jung, C. G.(1954).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New York: Pantheon.
- Kimmel, D. C.(1974). *Adulthood and aging*. New York: Wiley.
- Levinson, D. J., Darrow, C.N., Klein, E. B. Levinson, M. L., and McKee, B. (1978)., *The season of men's life*. New York: Knopf.
- Livson, F. B.(1981). Paths to Psychological Health in the Middle Years: Sex differences. In D.H.Eichorn, J.A. Clausen, N.Haan, M.P.Honzik, and P.H.Musen(eds.), *Present and Past in Middle Life*. New York: Academic Press. pp. 195-222.
- McCrae, R.R., & Costa, P.T.Jr,(1984). *Emerging lives, enduring dispositions*. Boston and To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 Marcia, J. E.(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5), 551-558.
- Marcia, J. E.(1976). Identity six years after: A follow-up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 145-160.
- Neugarten, B.L.(1968).(Ed.)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erlmutter, M. & Hall, E.(1985). *Adult Development and Aging*. John Wiley & Sons. Inc.
- Roberts, P., Newton, P. M. (1987). Levinsonian studies of women's adult development, *Psychology and Aging*, 2, (2), 154-163.
- Reinke, B.J., Homes, D. S., Harris, R.L.(1985). The timing of psychosocial changes in women's lives: The years 25 to 45.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1), 176-186.
- Schultz, D.(1977). 이혜성 역(1982). 성장심리학. 이화여대출판부.

Sheehy, G.(1976). *Passages: predictable crises of adult life*. New York: Dutton.

Siegler, I.C, Geoge, L.K., & Okun, M.A.(1979). Cross-sequential analysis of personality. *Developmental Psychology*, 15, 350-351

Vaillant, G.(1977). *Adaptation to life*. Boston: Little Brown.

Waterman, A. S.(198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n extens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ch.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 341-358.

Whitbourne, S.K., Waterman, A.S.(1979). Psychosocial development during the adult years: Age and cohort comparis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4), 373-

378

Whitbourne, S. K.(1986②). *Adult development.(2nd Ed.)* New York: Praeger Publishers

Whitbourne, S. K.(1986⑥). *The Me I Know: A Study of Adult Identity*. New York: Springer-Verlag

Whitbourne, S.K., Jelsma, B.M.(1982). An Eriksonian measure of personality development in collge students: A reexaminations of Constantinople's data and a partial replic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 369-371.

Woodruff, D. S., & Birren, J, E. ,(1972). Age change and cohort differences in personality. *Developmental Psychology*, 6, 22-259.

韓國心理學會誌: 發達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989. Vol. 2, No. 1, 54~68

A theoetical review on Personnality Development in the adulthood(1)

—A personality change theory, and exploration of the developmental
trend, variables and paths in the adulthood—

Ae Soon Kim

Yonsei University

There have been two different viewpoints, —the Change theory and the Stability theory—in the personality development in the adulthood. The reason was that those two theories have been measuring two different aspects of the adult personality development processes respectively. This article aimed review the related literature of Change theory comprehensively, and to explore the developmental trends, variables related with changing processes and its paths. The results show that personality development in the adulthood is “a changing process of self” rather than a changing of predisposition or traits, and there is a identity crisis in the core of the change.

The changing process is a sequential developmental process which is repeating transition and stability

periodically. And especially the Transition period is an important one and is divided into three major subperiods, —the Early Adulthood Transition, the Transition in the 30's, and the Transition in the middle Age—.

And this period also has specific developmental tasks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Even though the Transition in the middle Age is the most significant period in the changing of adult personality development processes, the specific studies have not been performed yet. In the changing processes, chronological age is more important than social age, and the identity status of the adolescent is an influential variable to it. In addition to it, there are gender—related differences in the changing process.